

|       |                                               |       |                        |
|-------|-----------------------------------------------|-------|------------------------|
| 보도 일시 | 2022. 12. 14.(수) 조간<br>2022. 12. 13.(화) 11:00 | 배포 일시 | 2022. 12. 13.(화) 06:00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br>항만물류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이민석 (044-200-5750) |
|       |                                               | 담당자   | 사무관 김수연 (044-200-5757) |

## 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 12.14. [수],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4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산업 전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해운·항만·물류기업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해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2년 간(2020~2021)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CEO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신석훈 위원은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에코비스오리진의 김익준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 간 우리 해운·항만·물류 부문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국제물류 부문의 상생협력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개의 해운·물류기업과 47개의 화주·물류기업 연합체(컨소시엄)가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물류 업계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기에,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685)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관련 사진

< 2018년 국제물류투자 CEO포럼 >



< 2019년 국제물류투자 CEO포럼 >

